"무주, 재정빙하기 도래"

황인동 무주군의원, 5분 발언서 "정부 지방교부세 삭감 우려"… 긴축운영방안 제시

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무주군에 재정빙하기가 도래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황인동 의원은 19일 열린 제30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및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무주군 재정전략 및 조직 혁신방안 제언'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군이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냉철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동 의원은 "무주군 본예산 일반회계 4,917억원 중 정부나 전북도로부터 지원받는 의부재원율이 90%나 된다.

이런 실정에서 정부의 2024년 지방교부세 삭감발표는 크나큰 걸림돌"이라며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지방교부세마저 238억원을 삭감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감안하면 앞으로 각종 보조금 삭감 등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재정빙하기를 강제로 맞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황인동 의원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며 무주군도 신규 투자사업과 공모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 교부세 삭감으로 무주군에 세출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사업 종료나 지원 축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 삭감이 군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인동 의원은 무주군 재정위기 극복방안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각종 건축물을 과감히 매각하고 신축 건축물은 향후 운영관리의 필요성을 냉철히 분석해 신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며 각종 기금사업도 운영의 적절성과 효용성을 검토해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 축제 및 행사예산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반려친화 관광정책으로 1000만 관광시대 열어야"

문은영 무주군의원, 5분 발언 통해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 수요 대비 제안

문은영 무주군의회 의원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려는 반려인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무주군이 반려친화 관광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시했다.

문은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30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주군 반려친화 관광 제언' 5분발언을 통해 "새로운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요인을 만드는 관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을 동반한 관광객 맞이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문은영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25.4%로 가구수와 세대원을 고려하면 양육인구가 1,30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동반여행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반려인 중 74.4%가 반려견과 동반여행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숙박시설, 음식점과 카페, 관광지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군이 참고해 반려 친화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문은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일부 자치단체가 반려동물 친화 공간을 조성해 관광과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반려친화 시설물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무주군에서 반려친화 관광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각종 관광자원을 반려인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고 반려인이 방문할 수 있는 식당이나 카페, 숙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은영 의원은 반려 친화 관광을 실현하기 좋은 장소로 향로산 자연휴양림을 꼽았다. 그는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반려 친화 캠핑장, 반려동물 산책 숲, 반려동물 놀이터 등 일부 시설만 추가하면 어느 자치단체보다 좋은 반려 친화 관광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고 당부하고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추석맞이 장수사과 쇼핑몰 할인 행사 연다

장수군이 19일부터 우체국 쇼핑몰과 장수몰을 통해 장수사과를 할인 판매한다.

추석 사과인 홍로사과의 주산지인 장수군은 고지대로 일교차가 커 홍로사과 재배에 최적지이며 장수 홍로사과는 과육이 단단해 아삭하고 당도도 높아 사과를 찾는 전국 소비자가 많다.

그러나 올해에는 봄철 서리 동해피해와 여름철 오랜 장마로 탄저병이 많이 발생해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25~40% 감소해 가격대가 전년 대비 30~40% 올라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농가에도 도움을 주고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해 우체국 쇼핑몰에서 가정용 사과 5kg를 45% 할인한 18,150원에 할인 판매한다.

또한 장수군 직영 장수몰(www.장수몰.com)에서도 선물용 사과 5kg(15과)를 20% 할인한 44,0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쇼핑몰 할인 행사를 통해 고품질 장수사과를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농가소득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용담면, 사랑의 다리 만들기사업 펼쳐

진안군 용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영희, 문동일)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용담면 취약계층 3가구에 대해 사랑의 다리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취약계층 사랑의 다리 만들기 사업은 취약계층 중 문턱이 높아 진출입에 애로가 있던 가구에 경사로를 설치해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실적 우수 단체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지원금 2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원금은 전액 재료비로 사용하고 용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동일 민간위원장의 재능기부를 통해 설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 추가로 1가구에 경사로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경사로가 설치된 용담면 송풍리 노은마을 주민은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좁은 계단 때문에 긴장하고 나왔는데 경사로 설치사업으로 그 걱정이 없어져 너무 좋다."며 "더운 날씨에 공사를 해준 용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동일 위원장은 "용담면 주민자치위원회·이장협의회 등 관내 기관사회단체와 향우회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인센티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동참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지속적인 후원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추석명절 대비 도로명 주소 홍보 총력

장수군은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은 내방객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알기쉽고 체계적인 선진 주소시스템인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홍보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를 생활 속 도로명주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석 명절 대목장을 찾는 군민 및 시장상인들에게 도로명주소의 편리성을 홍보하고,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알면 도로의 폭과 건물출입구의 위치 및 거리를 짐작할 수 있다. 또 도로명주소는 그 지점의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위급상황시 사고지점 위치주소로 활용하면 위치추적이 용이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도로명주소는 화재사고나 범죄예방에도 편리하며, 국가적으로는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 경제적 비용 감소에도 효과적인 선진 주소 체계로 국가 경쟁력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장수군은 군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농막 등의 가설건축물에도 도로명주소를 적극 부여하여 왔다.

최훈식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의견수렴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고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군청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운영

진안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19일부터 이틀간 진안군청 주차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9~20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는 직거래 장터는 진안고원에서 생산되는 사과, 메론, 홍삼제품 및 꿀 등신선 농산물과 가공품을 시중가보다 10~20% 저렴하게 판매한다.

또한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직접 판매하여 생산자에게 유리하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명절선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전현희 농축산유통과장은 "직거래장터를 통하여 농가와 소비자가 소통하며 상생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진안의 먹거리를 판매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찾아가는 임업 직불제 교육 실시

무주군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각 지역(14일 무풍면, 설천면, 15일 부남면, 18일 안성면)을 순회하며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 관련 임업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수강이 어렵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임업인(임산물생산업, 육림업 등)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70여 명이 참석해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의 역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준수사항,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의 역할을 교육받았다.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김경미 팀장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는 임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며 "직불금을 받으려면 해당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의무)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10% 감액된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 가위박물관, 22부터 '세계가위여행' 이벤트

진안군 가위박물관에서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홍삼축제 기간 '세계가위여행' 이벤트를 운영한다.

가위박물관은 가위라는 독창적인 콘텐츠로 2016년에 개관하여, 황새가위, 포도가위 등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위가 전시되어 있으며, 현재 '브레드이발소 in 가위박물관' 특별기획전시가 열리고 있다.

'세계가위여행'은 전시실에서 세계희귀가위를 관람하고 2개의 미션을 수행한 방문객에게 특별전 캐릭터 기념품을 1일 100명(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다.

군 담당자는 '홍삼축제기간 가위박물관 세계가위여행 이벤트를 통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가위유물을 보고, 가위에 대한 상상 그 이상을 눈에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